

# '7G 연속 안타' 추신수 시즌 활약 '청신호'

### 3타수 1안타 2삼진 기록

### 13경기 타율 0.333 유지

추신수(34·텍사스 레인저스)가 7경기 연속 안타 행진으로 타격감을 조절하며 올 시즌 정규리그에서의 활약을 기대케 했다.

추신수는 28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서프라이즈의 서프라이즈 스타디움에서 열린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메이저리그 시범경기에서 2번 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1안타 2삼진을 기록했다.

출발은 좋지 않았다. 1회와 3회 초반 두 타석에서 쿠바 출신 우완 투수 요한 로페스에게 내리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다.

하지만 5회 1사 2루에 주자를 두고 우완 조시 콜멘타의 2구째 체인업을 받아쳐 우전 안타를 만들었다. 2루 주자가 홈으로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1사 1, 3루 기회를 이어갔다. 1루에 진출한 추신수는 곧바로 대주자 하이로 베라스와 교체해 이날 경기를 마쳤다.

텍사스는 5회 추신수의 안타 등에 힘입어 4점을 뽑아 5-4로 역전승했다.

지난 13일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전에서 7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간 추신수는 시범경기 13경기에서 타율 0.333(3타수 11안타)을 유지했다.

홈런은 아직 신고하지 못했지만 4할대(0.421) 출루율과 함께 OPS(출루율+장타율) 0.845를 기록 중이다.

지난 2014년 텍사스 이적 후 시범경기에서 가장 좋은 컨디션을 보이고 있다.

초반 7경기에서 타율 0.267(15타수 4안타)로 다소 부진했던 추신수는 부상으로부터 5경기를 쉬었지만 복귀 후 타석에서 적극적으로 상대 투수의 공을 공략하고 있다. 정상적인 몸상태로 돌아온 그는



추신수는 28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서프라이즈의 서프라이즈 스타디움에서 열린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메이저리그 시범경기에서 2번 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1안타 2삼진을 기록했다.

이후 6경기에서 모두 안타를 때려내며 타율 0.466(15타수 7안타)로 타격감을 끌어올렸다.

추신수는 풀타임 메이저리거 3년차인 2010년 시범경기에서 4할에 육박하는 타율과 함께 홈런 3개 16타점을 올리며 가장 좋은 타격감을 보였다.

2013년 신시네티 이적 후 시범경기에서 타율 0.340 2홈런 OPS 0.891을 기록했을 당시 정규리그에서는 타율 0.285 21홈런 20

도루로 20-20 클럽에 3년 만에 재가입했다. 동시에 무려 112개의 볼넷을 얻어내며 출루율 0.423을 찍으며 출루머신으로서 절정의 기량을 뽐냈다.

이후 FA 대박을 터뜨리며 텍사스 유니폼을 입은 추신수는 2014년 시범경기에서 처음으로 1할대(0.161) 타율로 고전한 뒤 정규리그에서도 부상에 시달리며 최악의 시즌을 보냈다.

지난해에도 시범경기에서 0.205로 타격감

을 찾지 못한 추신수는 후반기에 놀라운 반전을 만들어냈지만 전반기에는 최악이었다. 따라서 현재까지 추신수의 시범경기 성적으로 봤을 때 텍사스 이적 후 가장 좋은 타격 컨디션을 유지하며 시즌을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공식이 들어 맞는다면 올 시즌 정규리그에서 '추추 트레인의 화려한 질주'가 기대된다.

/김민근 기자

## 박소연·최다빈 세계 피겨스케이팅 선수권 출전

한국 피겨 기대주 박소연(19·단국대)과 최다빈(17·수리고)이 국제빙상연맹(ISU) 2016 세계 피겨스케이팅 선수권에 출격한다.

대한빙상경기연맹(회장 김재열)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미국 보스턴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 한국 대표로 남녀싱글 3명과 아이스댄스 1개팀이 출전한다고 28일 밝혔다. 대표선수들은 지난 1월 국내에서 열린 피겨종합선수권에서 태극마크를 획득, 보스턴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박소연은 세 번째 세계선수권대회에 나선다. 지난 2014년 9위에 올랐던 박소연은 지난 대회에서는 12위에 그쳤다. 이번 대회에서 다시금 탑10 진입을 노리고 있다. 지난달 열린 2016 사대륙선수권에서 자신의 국제대회 최고 점인 178.92점을 획득하며 4위에 올라 기대감을 높였다.

최다빈은 생애 첫 세계선수권 무대에 도전한다. 2015~2016시즌 주니어그랑프리시리즈 2개 대회에서 연이어 동메달을 수확했다. 사대륙선수권에서는 173.71점으로 8위에 올랐다.

남자싱글에서는 이준형이 스케이트 끈을 조여맨다. 이준형은 종합선수권에서 223.72점으로 우승하며 국내 신 기록을 경신했다. 첫 세계선수권이었던 지난해에는 197.52점으로 19위에 올랐다.

아이스댄스의 레베카 김·캐럴 미노프틴은 프리 컷 통과를 목표로 두 번째 세계선수권에 출전한다.

/김민근 기자

## 삼성 라이온즈 방출 임창용 KIA 타이거즈로 컴백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에서 방출된 임창용(40)을 친정팀 KIA 타이거즈가 품었다.

KIA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늦은 밤 임창용과 연봉 3억원에 입단 계약을 맺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해위원정도박 혐의로 징계 처분을 받고 삼성에서 방출된 임창용은 고향팀인 KIA에서 야구 인생을 마무리하며 자신의 잘못을 씻고 싶다는 뜻을 수 차례 밝혀왔다. KIA 역시 임창용에게 반성과 재기의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

공식 계약은 관에서 개인훈련 중인 임창용이 귀국하는 대로 체결할 예정이다. 임창용은 야구 발전을 위해 연봉 3억원 전액을 기부하고, 지속적으로 재능 기부 활동을 펼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창용은 "지속하고 반성하며 그라운드에서 설 수 있기를 고대했고, 저에게 기회를 준 KIA 구단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야구를 다시 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다. 다른 말 필요 없이 야구를 통해 백의종군하며 많은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셨던 팬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 이대호 로스터 진입...개막전 추신수와 맞대결 가능성 '주목'

### 40인 진입 확정...25인도 긍정적 반응

부여 명예를 포기하고 빅리그에 도전장을 던진 이대호(34·시애틀 매리너스)가 개막 25인 로스터 진입에 성공해 오랜 꿈을 이뤘다.

이대호의 국내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몬티스 스포츠 매니지먼트그룹 관계자는 28일 뉴시와의 통화에서 "구단 측에서 이대호의 25인 로스터 진입을 확정했다고 알려졌다"고 밝혔다.

미국 현지 언론은 이날 매리너스가 이대호의 40인 로스터 진입을 확정하는 동시에

개막 25인 로스터 진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개막을 앞두고 빠른 속도로 로스터를 정리하고 있는 시애틀은 이대호를 개막전 명단에 포함하면서 메이저리그 계약이 유효하도록 효력을 발동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대호가 메이저리그 40인 명단에 합류하지 못하면 FA(자유계약선수) 자격을 얻게 된다.

지난달 초 시애틀과 옵션 포함 최대 400만 달러(약 48억 7000만원)에 1년 계약을 맺으면서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포함되지

못한다면 FA를 선언할 수 있는 옵션 아웃 조항을 삽입했기 때문이다.

40인 로스터를 확정하면서 100만 달러를 받게 된 이대호는 올 시즌 활약에 따라 최대 400만 달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제1리포트 시애틀 단장은 이대호의 40인 로스터 진입을 확정하고 25인 로스터 진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시범경기를 통해 좌타자인 애덤 린드의 플레톤 파트너 1루수 대체 요원, 지명타자를 찾고 있던 시애틀은 이대호를 25인 로스터에 포함해 적임자로 꼽았다. 이대호는 시범경기 18경기에서 타율

0.250(40타수 10안타) 1홈런 4타점 10득점의 성적을 거두고 있다.

메이저리그 입성을 넘어 개막부터 출전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된 이대호는 개막전 선발 출장에 비호를 받았다.

심지어 시애틀의 개막전 상대는 추신수가 뛰고 있는 텍사스 레인저스다. 텍사스는 지난 주 좌완 볼 해럴드를 개막전 선발 투수로 낙점했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부산 출신의 '절친' 이대호와 추신수가 나란히 메이저리그 개막전 선발로 나서 맞대결을 펼치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도 높다.

/김민근 기자

## 평창올림픽 조직위, 인스타그램 개설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조양호)가 28일 "사진과 동영상 공유하고 확산하는 글로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한글과 영어를 동시에 사용해 인스타그램을 운영한다. 감각적인 사진과 영상을 통해 국내외 동계 스포츠팬들이 쉽게 평창 대회를 만나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신무철 조직위 홍보국장은 "인스타그램 개설로 평창올림픽 관련 소식들을 더 빠르고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며 "조직위는 모바일 사용이 많은 젊은 세대를 겨냥해 김연아와 같은 스포츠 스타와 한류 스타를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하겠다. 관심과 흥미를 일으킬 수 있는 홍보 채널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다음달 6일까지 인스타그램 신규 오픈을 기념하는 '응원 댓글 남기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김민근 기자

##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태권도원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